

許筠의 文學論 研究

— 「文說」을 중심으로 —

이 규 운 *

<目次>

- | | |
|-----------------------|--------------------|
| I. 緒論 | 2. 개성적인 문장을 중시한 文學 |
| II. 許筠의 文學論 | 3. 篇·章·字法을 중시한 文學 |
| 1. 民衆과 當世의 道를 반영한 古文論 | III. 結論 |

<국문 초록>

許筠(1569년, 선조 3년~1618년, 광해군 10년)은 시대를 초월한 삶과 문학적 기행을 보여준 작가이다. 본 논문은 「文說」에 드러나는 許筠의 개성적 문장론을 살펴, 그의 문학론의 일단을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許筠은 당시의 시대적 사상적 변혁의 한가운데에서 문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문학이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것이 「文說」과 「詩辨」 등이다.

許筠은 공자의 문학론을 제시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문학의 목표가 ‘辭達’에 있음을 밝히고 文章이란 ‘通上下之情’과 ‘載其道而傳’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通上下之情’과 ‘載其道而傳’은 기존의 유가적 문학이론에 바탕한 고문론의 논리와는 다른 것이다. 許筠은 민중의 정감을 바탕으로 하고,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곧 文章이 지향

* 치악고등학교 교사 / ddd3315@empal.com

하는 민중성과 현실성을 강조한 것이다.

허균은 이러한 고문에 대한 원론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當世之常語를 통한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장을 지향하였다. 當世之常語는 허균의 문학론을 이해하는 중요지점이기에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常語를 작품 속에서 확인하였다. 첫째 민중들의 삶과 소박한 감정이 담긴 문장이다. 둘째 시대를 반영하는데 알맞은 문장이다. 셋째 상대방의 의론을 중시하는 문장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것이 드러나는 許筠의 실제 문장을 예로 제시하여 논증하였다. 결국 許筠은 이러한 當世之常語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문장을 쓰고자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許筠이 주장하는 法古에 대해 살펴보았다. 許筠이 사용한 편법, 장법, 자법에 관한 수사적 표현은 개별 문체의 특징을 고려한 분별적인 논의가 아니라 산문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사적 층위에 대한 고려는 文以載道라는 文學認識이 팽배했던 朝鮮前期의 文學家들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文章에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반면에 法古의 연원이 당송파 문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許筠, 古文論, 常語, 文設

I. 緒論

許筠(1569년, 선조 3년~1618년, 광해군 10년)은 시대를 초월한 삶과 문학적 기행을 보여준 작가이다. 그는 「文說」에서 ‘옛것을 본받지 아니한 것은 또한 나름대로 우뚝 솟고자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남의 문장을 답습하거나 표절하지 않은 개성 있는 자신의 글을 쓰겠다는 선언이 아닐까 싶다. 본 논문에서는 「文說」에 드러나는 許筠의 개성적 문학론을 살펴, 그의 문학론의 일단을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許筠은 당대 명문 仕宦家 집안에서 태어나,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아 사신이나 接伴使로 활동하였고, 임진왜란 때에는 조선에 파견된 明軍들

과의 교류를 통하여 朝鮮과 중국의 많은 서적을 탐독할 수 있었다. 許筠은 당시의 시대적 사상적 변혁의 한가운데에서 문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문학이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것이 「文說」과 「詩辨」 등이다.

許筠은 「文說」에서 좌씨는 스스로 좌씨이고, 장자는 스스로 장자이기에 許筠은 스스로 許筠이기를 원한다고 하여, 전범보다는 개성을 중시하는 산문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文說」에 대한 이해는 허균의 문학론에 접근하는 중요한 길목이 되어왔다. 특히 當世之常語는 허균이 작품에서 전개하는 비판적 논리의 근거가 되고, 屋下架屋처럼 답습하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은 개성적인 문학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當世之常語에 집중하면서도 상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보다는 추상적 이론 정립에 그칠 뿐이었고, 작품에 드러나는 독창성을 인정하면서도 허균이 전후칠자에 경도되었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개성적인 문학론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許筠의 고문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추구하는 개성적인 문학관의 중요지점인 當世之常語를 작품 속에서 확인하여 허균이 추구한 개성적 산문 쓰기의 실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篇·章·字法을 중시한 文學의 연원을 통해 許筠 문학관의 출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許筠의 文學論

文學觀은 文學이 형이상학적 영향이나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의 무의식적 반영 혹은 계시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보는 입장과, 또는 文學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¹⁾ 유약우는 文學의 창조적 관계를 우주, 작가, 작

1) 유약우의 문학이론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전자는 형이상학적 이론과 결정론

품, 독자의 순환적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²⁾ 전자의 경우가 우주와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서 작가에게 중심축이 있는 文學論이라면, 후자는 작가와 작품, 독자의 관계에서 중심축이 독자에 있는 文學論이라 볼 수 있다. 결국 文學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어떤 작가가 가지고 있는 文學觀은 어느 하나에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효용론적 관점에서 文學을 이해하면서도 기교적인 문장 의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許筠에게 있어서도 원론적인 면에서는 효용론적 文學論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文學論에 있어서는 결정론적·기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許筠의 文學論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文說」이다. 이는 許筠이客과 의 문답 형식을 취하여 자신의 문학관을 밝힌 글이다. 이를 통해서 허균 문학의 일단을 살펴보자.

1. 民衆과 當世의 道를 반영한 古文論

許筠은 「文說」에서 ‘文은 의사를 전달할 따름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제시하며 자신의 文學觀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적 표현론적 文學의 관점이고, 후자는 기교론, 심미론, 효용론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유약우, 『中國의 文學理論』, 명문당, 1994.)

- 2) 유약우는 문학의 창작과정을 우주(Universe), 작가(Writer), 작품(Work), 독자(Reader)가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4단계로 설명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자연이 작가에 영향을 주고, 작가는 그것에 감동한다. 이러한 반응을 벗어나서 작가는 한 작품을 창조한다. 이것이 둘째 단계이다. 작품이 독자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은 그를 곧 감동시킨다. 이것이 셋째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연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작품에 대한 그의 경험에 의하여 수직화 된다. 이렇게 전 과정은 완전한 순환을 형성한다. 동시에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자연히 그에게 영향을 끼친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작품에 대한 반응에 의거하여 그는 작가의 마음과 통할 수도 있으며, 작가의 자연에 대한 반응을 재포착할 수도 있으므로, 그 순환은 동시에 거꾸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관점에서 文學의 창작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유약우, 위의 책, pp.38-39.)

공자가 ‘文은 의사를 전달할 따름이다.’ 하였다. 옛날에는 글로써 군신 上下의 의사를 소통하고 글로써 그 道를 실어 전하였던 까닭에, 明白·正大하고 諄切·丁寧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분명하게 그 가리키고 뜻하는 것을 알게 하였으니, 이것이 글의 效用이다.³⁾

이는 의사소통이 문학의 중요한 기능임을 인정한 것으로, 許筠은 옛사람들이 辭達을 성취하기 위해 ‘通上下之情’하고 ‘載其道而傳’하였다고 보았다. 옛사람들은 文章에서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정감을 곡진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옛사람들이 생각한 문장의 효용이라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제는 ‘辭達’과 ‘通上下之情’, ‘載其道而傳’이라 생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辭達은 공자의 文章에 대한 이론으로, 文學作品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의미 전달에 능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이 말은 文學의 표현론을 지지하는 비평가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는 것⁴⁾으로 『論語』 「衛靈公篇」에 나온다. 문자 상으로는 文學作品中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다만 뜻을 통하고, 내용전달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식은 辭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에 문체가 없으면 멀리 행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文章이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고 하셨다. 무릇 말은 뜻을 전달하는데에 그친다고 한다면 문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3) 許筠, 『惺所覆瓿藁』 卷12, 「文部9」, 「文說」 p.238. “子曰辭達而已矣. 古者文以通上下之情以載其道而傳. 故明白正大諄切丁寧, 使聞者曉然知其指意, 此文之用也.”

4) 유약우는 ‘辭達而已矣’와 ‘言之無文 行之不遠’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언급하면서 전자는 文學의 표현론을 지지하는 비평가들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후자는 심미론을 지지하는 다른 비평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 표현론은 文學, 특히 시는 자연적인 인간 정신의 자발적인 표현이며, 이것이 실제로 아득한 옛날에는 시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유약우, 앞의 책, p.275.)

령지가 않다. 사물의 오묘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을 묶고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어려워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천만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하는 말이나 손으로 쓰는 글로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겠는가? 辭達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文章이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데에 이르면 문체는 비로소 그 쓰임에 여유가 있다.⁵⁾

소식은 공자가 ‘辭達’을 말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言之無文 行之不遠’을 이야기 한 예를 들었다. 이는 공자가 文章은 그 뜻[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문체[형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소식의 辭達에 대한 이해는 후대 문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한 辭達의 文學論을 인용할 때면 내용과 형식이 완전하고도 아름답게 결합된 고차원의 文學을 의미한다. 許筠이 「文說」에서 ‘辭達’을 인용하였다는 것은 내용과 형식을 함께 고려한 文學論을 지지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본 논의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許筠은 辭達의 文學論을 전제하고 “文章을 가지고 上下의 情을 통하게 하고, 그 道를 실어서 傳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文眼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通’과 ‘傳’이라 볼 수 있다. 이때 ‘通上下之情’에서의 통하게 하는 대상과 또 ‘載其道而傳’에서 傳하고자 하는 ‘그 道’는 무엇인가? 이를 밝혀 보는 것은 許筠의 문장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먼저 許筠이 말하는 上下之情의 의미를 알아보자. 上下之情에서 상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신분의 고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上下之情은 君臣 上下간의 情을 의미하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在上者와 在下者간의 정을 뜻한다.⁶⁾ 중요한 것은 文은 이것을 통하게 한다는 점이다. 在

5) 蘇軾, 『蘇軾文集』卷49, 「與謝民師推官書」 “孔子曰, 言之不文行而不遠. 又曰, 辭達而已矣. 夫言止於達意, 則疑若不文, 是大不然. 求物之妙, 如繫風捕影, 能使是物了然於心於心者, 蓋千萬人而不一遇也. 而況能使之了然於口與手者乎? 是之謂辭達, 辭至於能達, 則文不可勝用矣.”

6) 李文奎, 『許筠散文文學研究』, 三知院, 1986, pp.42-43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

上者和 在下者의 감정을 通하게 하는 것이 文이니, 文은 결국 서로를 통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렇기에 許筠은 공자가 말한 ‘辭達’의 입장을 전제한 것이다. ‘上下之情’은 在上者和 在上者, 在下者和 在下者간의 情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으며, 在下者에서 在上者로 흐르는 情感으로 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조선 전기 道學家들이 제시하는 文以載道的 文學論⁷⁾은 작문이 在上者들의 향유물이라고 인식하였고, 在上者에서 在下者로 흐르는 효용론이 초가 되었다. 곧 문장의 주체는 대부분 재상자인 작가의 몫이었다. 그러나 許筠이 살았던 당시는 穆陵盛世로 일컬어지는 문흥기로 문학 형태에 대한 사고가 韻文에서 散文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조선 전기부터 주자학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은 관료에 진출하는데 있어 한문지식은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교유와 사대외교를 위해 한시에 대한 실력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양이었다. 이러한 文에 대한 인식은 宣祖朝 전후로 관심축이 산문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다. 그것을 방증하는 예로 고문사를 인식하고 文章之文을 추구하였던 최립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점,⁸⁾ 16세기 말 17세기 초 중국의 의고문파·전후칠자의 수용은 조선 문

에서, 관료와 백성 사이에서, 在上者와 在下者의 사이에서의 감정적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 7) 周敦頤는 효용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文과 道の 관계를 논했는데, 文辭는 文章에 있어서의 修飾을 가리키며 그것은 道德을 전달하는 效用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한다. 수레에 물건이 실려야 수레로서의 效用이 있는 것처럼, 글에도 道가 실려 있어야 글로써 존재할 가치가 있다. 道가 실려 있지 않은 글은 잘 만들어졌으나 물건이 실리지 않는 수레와 같다고 하여, 文章에 道德이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도덕주의적 文學論은 조선 전기 도학가들의 文學論의 주가 되었으며, 이는 유교주의적 신분 사회에서 사대부들의 文學理論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8) 沈慶晷는 조선 전기 이래로 대소문자는 詞命文이나 館閣酬應을 정점으로 하여 왔다. 그러다가 임진란을 전후한 시기에 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동호인 그룹이 형성되면서, 문체 미학이 각별히 중시되기에 이른다. 종래 명사와의 수용을 위하여 예비되었던 종사관의 수가 선조 연간에 증가하여 『皇華集』에 수록되는 唱和詩 제작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은 그 시기에 문사의

단에 선진양한 산문을 전범으로 삼는 흐름이 있었다는 점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文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許筠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중 지향적 사고와 쉽게 접맥된다.

민중 지향적 문학론은 許筠 詩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許筠은 「題唐絕選刪序」에서 시의 道는 『詩經』에 구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優游敦厚하여 죽히 善心을 감발시키고 악을 징계할 만한 것은 國風이 가장 훌륭하고, 雅와 頌은 理路에 관계되어 性情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漢·魏 이후로는 시를 하는 사람도 많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도 상세하고 세밀한 데로 잘못 빠져들었으니, 이는 다만 雅·頌의 流가 범람한 것으로 性情의 道라고 할 수 없다¹⁰⁾고 지적하였다.

이같은 許筠의 입장은 주자 이래 성리학에서 『詩經』의 風·雅·頌 모두가 사람이 타고난 理를 보여주고 윤리적 질서를 구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과는 다른 것¹¹⁾이다. 風은 대부분 마을과 골목 가요에서 나온 작품으로, 이른바 남녀가 노래하고 읊으며, 각각 그 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평민들의 현실 생활과 정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농도 짙은 사실주의 문학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雅는 周나라 조정에서 연

수가 늘어나고 층이 두터워진 사실을 반영한다. 형식미를 우위에 두는 최립의 文章之文論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沈慶昊, 『朝鮮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p.193.)

- 9) 강명관은 선조에서 인조에 걸치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진한고문파는 실로 정치와 문단의 권력을 쥔 실세로 군림하였으며, 이것이 진한고문을 유행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보았다. 진한고문파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문단이 형성되었는가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당시의 문학적 흐름이 의고문에 관심을 가지는 등의 산문문장 문예미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제41집, 대동문화연구회, 2002.)
- 10) 許筠, 『惺所覆誦藁』 卷5, 「文部2」, 「題唐絕選刪序」, p.185. “嘗謂詩道大備於三百篇, 而其優游敦厚足以感發懲創者, 國風爲最盛雅頌則涉於理路, 去性情爲稍遠矣. 漢魏以下爲詩者, 非不盛且美矣. 失之於詳至宛繹, 是特雅頌之流濫耳. 何足與於性情之道歟?”
- 11) 조동일,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98, p.217.

주되는 음악을 말하던 것으로, 자연 발생적인 風과는 달리 궁중의 공식 음악인 伽倻에, 소박하기 보다는 세련된 맛이 있고, 애정보다는 道義와 政治에 기울어진 면이 강하다. 頌은 선조를 제사하는 시가 많고, 사직, 천지 황하와 산악 및 백신 등에게 제사하는 것들로 되어 있다. 許筠은 이러한 風·雅·頌의 발생적 근원을 확인하고 國風과 雅·頌을 情과 理路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였다. 國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묻어나고 있는 반면 雅·頌은 理路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性情과는 멀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許筠은 『詩經』의 양면성을 고찰하고 정감적 바탕에서 시학의 참 값어치를 찾은 것이다. 이는 곧 許筠의 시론도 일관되게 민중 지향적인 성격이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許筠은 「聞罷官作」이라는 시에서 예교나 법에 매일 수 없고 정에 맡겨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禮教寧拘放	예교가 어찌 자유로움을 구속하리
浮沈只任情	인생의 부침을 다만 정에 맡길 따름이라
君須用君法	그대는 모름지기 그대의 법을 쓰시오
吾自達吾生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이룰 터이니 ¹²⁾

이 시는 불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삼척부사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탄핵을 받고 파직된 자신의 심정을 읊은 시이다. 예교라는 틀에 얽매어, 불교나 도교를 용납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許筠은 감정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당시의 참담한 심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일시적 감정 변화에 따른 푸념일 수도 있지만, 허균에게서 드러나는 평소의 삶¹³⁾이나 비평에서 정감을 중요시하는 면을 보면 일맥

12) 許筠, 『惺所覆瓿藁』 卷2, 「詩部2」 二, 「聞罷官作」 其二, p.139. “禮教寧拘放 浮沈只任情 君須用君法 吾自達吾生 親友來相慰 妻孥意不平 歡然若有得 李杜幸齊名”

13)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15, 「雜著」, 「示兒代筆」, p.520. “王守仁弟子, 講道於江湖間, 一再傳而入於盜賊. 有顏山農者, 聚徒講書, 以一欲字, 爲法門宗旨, 從

상통하는 바이다. 그렇기에 ‘文以通上下之情’이라 하여 정감을 중요시하는 민중 지향적 문학론을 제기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文章이 그 道를 실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은 고문이 지녀야할 조건으로 내용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여기서 許筠이 말하는 ‘載其道而傳’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道’는 무엇인가? 許筠이 文章이 담아야 할 道는 현실 정치와 시대에 도움이 되는 삶의 道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文以載道에서 말하는 ‘道’와 ‘載其道而傳’에서의 ‘其道’는 표면상으로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許筠의 ‘載其道而傳’을 조선 전기 도학가들이 주장하는 ‘載道’의 文學과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¹⁴⁾ 그러나 허균이 말하는 ‘其道’는 조선전기 도학가들이 윤리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道義 道德과는 다른, 현실 생활과 연결되는 삶의 道라고 여겨진다.

조선조 문학사상은 처음에는 理法論이 확립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정감론 쪽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띤다. 그 예로 조선조 도학가들의 학문적 경향을 들 수 있다. 理學에 대한 논의가 확립되는 것은 화답과 퇴계에 이르면 절정을 이룬다. 퇴계의 主理論의 표방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율곡에 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의 主氣論的 체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의 변화가 허균에 오면서 윤리적 도덕의 중요성 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정감과 개성을 중요한 문학적 제재로 채택하는 변화를 가져오는데,¹⁵⁾ 이것도 道의 내용적

者數百人。有何心隱者，以一殺字，爲宗旨，皆以師門自處，而行殺越之事，連結南蠻，將作變而被誅。許筠聰明有文才，以父兄子弟，發迹有名，而專無行檢。居母喪，食肉狎娼，有不可掩。以此不得爲清官，遂博觀仙佛書，自謂有所得，自此尤無忌憚。晚以締結元兇，官至參贊，竟謀大逆誅死。其人事不足污口。顧嘗聞其言曰，男女情欲天也。倫紀分別，聖人之教也。天且高聖人一等，我則從天而不敢從聖人。其徒誦其言，以爲至論。此固異端邪說之極致，非筠始言之。老·莊，佛之書，皆有其意。陸象山·王陽明，雖藏機不露，但熟觀其書，則自有一脈透漏處。流於山農，許筠之所爲，特未達一間，可懼哉。”

14) 정요일은 ‘通上下之情 載其道而傳’에서 ‘載其道而傳’에 주목하고 許筠의 文學論도 문이제도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90, p.61.)

변화양상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허균이 말하는 ‘其道’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道를 의미한다.

許筠은 문학의 내용을 현실의 문제로 삼았기에 다음과 같은 논설이 가능했던 것이다. 사심에 얽매인 선비들의 학문적 흐름에 대한 비판하는 「學論」, 밝음으로써 이랫사람을 살피고 믿음으로써 신하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政論」,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원만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官論」, 체계적인 군정과 군대의 양성을 주장하는 「兵論」, 신분의 귀천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遺才論」, 관리들의 녹은 줄이면서 그들의 청렴만을 독직하는 세태를 고발한 「厚祿論」, 음흉한 봉당의害人 소인이 조정을 전횡하는 것보다 심하다고 말하는 「小人論」, 재해나 날짐승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임을 강조한 「豪民論」 등은 현실의 문제를 드러낸 문장들이다.

이상에서 밝힌 ‘通上下之情’과 ‘載其道而傳’은 기존의 유가적 문학이론에 바탕한 고문론의 논리와는 다르다. 유가적 고문이론의 논리는 교화적인 文章, 유가의 도통을 이어주는 文章을 제시한다. 그러나 許筠은 민중의 정감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의 사회적 문제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文章觀을 가지고 있었다. ‘古者’라 하여 옛사람들의 고문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밝히는 듯하지만 이는 자신의 文章이 지향하는 민중성과 현실성을 드러낸 것이라 여겨진다.

2. 개성적인 문장을 중시한 文學

許筠이 辭達의 文學論을 제시하고 옛사람들의 文章觀에 대해 말한 것은 고문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이다. 그렇다면 文章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하는가? 許筠은 當世之常語를 가지고 나만의 문

15) 최신호, 「비평을 통해서 본 허균문학의 기본 좌표」, 『허균연구』, 새문사, 1989, p.Ⅱ-27.

체로 써야함을 강조한다. 常語와 개성적인 문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몇 분의 글 또한 상용어와 무엇이 다른가. 내가 보건대, 비록 간결한 듯도 하고 옹혼한 듯도 하며, 심오한 듯도 하고 奔放한 듯도 하고 굳세고 기이한 듯도 하지만, 대체로 그 당시의 상용어를 가지고 바꾸어서 고상하게 만든 것이니, 참으로 쇠덩이를 달구어서 황금을 만들었다고 이를 수 있다. 후세 사람이 오늘날의 글을 볼 적에 어찌 오늘날 사람이 그 옛날 몇 분들의 글을 보는 경우와 같지 않을 줄을 알겠는가. 하물며 도도 망망하게 한 것은 진정 웅대하게 하고자 한 것이며, 옛것을 본받지 아니 한 것 또한 나름대로 우뚝 솟고자 한 것인데 무슨 자만이 있었는가. 그때는 그들 몇 분을 자세히 보았는가? 좌씨는 스스로 좌씨이고, 장자는 스스로 장자이며, 사마천·반고는 스스로 사마천·반고이고,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 역시 스스로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이어서 서로 답습하지 않고 각각 일가를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배웠으면 하는 것이고, 지붕 밑에 거둬 지붕을 엮듯이 남의 文章을 답습하여, 표절했다는 꾸지람을 받을까 부끄러워한다.¹⁶⁾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문을 쓰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 밝힌 것이다. 그 조건의 하나는 當世之常語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남의 文章을 답습하거나 표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許筠은 文章을 고상하고 진실되게[雅眞] 만들어 點綴成金하기 위해서는 當世之常語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文章만이 진정 널리 전해지는 웅대한 것이 될 것이요, 개성 있는 文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예로 좌씨, 장자, 사마천·반고,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 등과 같은 문장가를 제시하였다. 當世之常語를 통한 개성적인 文章이 許筠 문장의

16) 許筠, 『惺所覆瓿藁』 卷12, 「文部9」, 「文說」, p.238. “余曰, 之數公之文, 亦何異於常耶? 以余觀之, 雖若簡若渾若深若奔放若偏奇, 率當世之常語, 而變爲雅眞, 可謂點鐵成金也. 後之視今文, 安知不如今之視數公文耶? 況滔滔莽莽, 正欲爲大, 而不銓古者, 亦欲其獨立, 奚旣爲? 子詳見之數公乎? 左氏自爲左氏, 莊子自爲莊子, 遷固自爲遷固, 愈宗元脩軾亦自爲愈宗元脩軾. 不相蹈襲, 各成一家. 僕之所願, 願學此焉, 恥向人屋下架屋, 蹈竊鉤之謂也.”

지향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當世之常語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은 許筠의 문장 창작 논리를 밝히는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된다.

當世之常語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문규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언어라는 측면과 당시의 문제를 다룬 언어라는 양면을 지닌다¹⁷⁾고 보았고, 장덕순은 표기 수단의 문제이면서도 실은 작가가 마땅히 다루어야 할 내용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것은 소위 당대의 일상용어-비어나 속어가 섞인-로서 우리의 것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표현¹⁸⁾이라 정의 하였다. 최신호는 일상적인 쉬운 말로 다분히 정감을 서술하는 언어이며, 시대를 반영하는데 알맞은 말¹⁹⁾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當世之常語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17)李文奎, 앞의 책, p.43.에서 當世之常語란 작가가 살고 있는 당대의 평범한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상어를 두고 한말이다. 이 말 속에는 작가가 살고 있는 ‘당대’를 중시한다는 뜻과 평범한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상어를 중시한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 ‘당대’를 중시한다는 것은 작가가 살고 있는 현실을 중시한다는 것이며, ‘일상어’를 중시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소박한 감정과 생각이 담긴 언어를 중시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文學이 當世之常語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당대의 현실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백성들의 소박하고 진솔된 감정이나 생각을 훌륭하게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18) 장덕순은 상어가 한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한문 표기는 상당히 발전한 문학의식이며 우리의 것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 보았다. (장덕순, 『허균문학의 문학사적 위치』, 『허균 연구』, 새문사, 1989, p.Ⅱ-53.)
- 19) 최신호는 상어란 일상적인 쉬운 말로 다분히 정감을 서술하는 언어인 것이다. 지극히 높은 선형적 논리체계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현실에서 배설된 절박한 언어형태란 뜻이다. 그 언어에는 개인의 정감은 물론이요, 민중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세상의 흐름이 서려있다. 상어는 현실인간의 회로애락을 표현하는 데 가장 알맞은 말이고, 시대를 반영하는데 알맞은 말이 된다. 상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통한다고 보았다. (최신호, 앞의 책, p.Ⅱ-29.)

- ① 표기수단으로서 당시의 언어적 습관을 말한다.
- ② 민중들의 삶과 소박한 감정이 담긴 문장이다.
- ③ 시대를 반영하는데 알맞은 문장이다.
- ④ 작문자의 논리적 사유보다는 상대방의 의론을 중시하는 문장이다.

여기서 ①②③은 시대성과 ‘常語’라는 일상성, 그리고 언어적 습관성을 간파하여 정리한 것이며, ④는 당시 운문에서 산문으로 전환되는 문학적 흐름에서 許筠에게서만 드러나는 작문상의 특징이기에 상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후의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①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 현재 당시의 언어적 습관에 드러나는 한문 상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②③④에 대한 연구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 보다는 추상적인 개념 정립에 그쳤다.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전」과 관련하여 한글을 상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許筠의 모든 文學的 표현이 한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③④의 관점에서 當世之常語의 구체적인 예를 許筠의 산문을 통해 확인해 본다.

1) 民衆들의 삶이 담긴 文章

當世之常語란 민중들의 삶과 소박한 감정이 담긴 이야기이다. 이는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애환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장을 말한다. 이같은 常語의 예로 「探元窩記」를 들 수 있다. 「探元窩記」는 記로 이루어진 서사문의 일종이다. 원래 記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관찰 내용을 기록한 글로 서사 주동자의 공을 논하고 덕을 칭송하는 論功頌德을 위해서 쓰여졌다. 記는 논공송덕의 쓰임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공덕을 전파하여 세상을 교화하는 世教之文으로 기능하게 된다. 許筠의 「探元窩記」는 이러한 논공송덕과 세교지문의 記와는 달리, 일상적인 민중의 삶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探元窩記」는 許筠이 盲人 李光義의 거실을 探元窩라고 명명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광의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뛰어난 인물이다. 許筠은 이광의와 사귀게 되는 계기를 적으면서, 그의 철학과 민중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은 「探元窩記」의 일부이다.

探元窩란 맹인으로서 점술을 말하는 李光義란 자의 거실이다. 어째서 그 探元이라 하였는가? 李白의 嚴君平을 노래한 시에 ‘근원을 탐색하여 群生을 교화한다.[探元化群生]’는 글귀가 있어 그를 취하여 이름 지은 것이다 (中略) 계사년 (1593, 선조26)에 中和府 북쪽에 살 때 집을 짓고 스스로 이와 같이 이름 지었다고 한다.

나는 세상과 어긋나서 점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동강 서쪽에 왕래하기를 무릇 다섯 번이요, 의란 자를 만난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역시 운명을 논하지 않았다. 楊滄嶼를 따라서 中和에 묵을 적에 의가 침상을 같이하고 누웠는데, 우연히 나의 운명에 대하여 묻고는 인하여,

“그대의 壽는 마땅히 연장될 것이고 位도 마땅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내년 여름에는 海西의 佐幕이 될 것이니, 나는 마땅히 黃岡으로 그대를 찾아 갈 것이다.” 했는데, 급기야 그 다음해 과연 좌막이 되었다. 황강에 도착한 지 수일에 의가 과연 와서,

“내 말이 들어맞는가?”

하기에, 나는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아, 세상 사람들이 점술을 믿고 점치기를 즐기는 것은 모두 여기에 걸려드는 까닭이구려.” 하였다. 의는 또 아무 해는 길하고 아무 해는 흉하며, 아무아무 해는 감사가 되고 帥臣이 되며 임금의 측근이 되고 卿貳[左贊成과 右贊成]가 된다며, 역력히 죄다 말하였다. (中略)

그러자 곁에 다리 없는 趙君이 있다가 “옛날에 임금과 재상은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있는데, 의가 당신이 재상이 될 것이라 했으니, 운명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오.”

이에 나는 “아니오, 아니오. 『書經』에 ‘우리 인생은 운명이 하늘에 있지 않은가[我生不有命在天]’ 하였으니, 만약 이 말이 堯舜이나 夔와 臯陶로부터 나왔다면 진실로 나라를 망칠 말이오. 하지만 만약 阮籍이나 陶潛의 입에서 나왔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일러 인생에 달관했다느니,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안다

느니 하였을 것이오. 나는 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히 기나 고요와 같은 사업을 바라지는 못하지만, 완적의 방당과 도잠의 疏曠은 거의 나와 더불어 뜻이 같다 할 것인즉 비록 ‘운명이 하늘에 달려 있지 않다.’ 해도 또한 괜찮지 않겠소?” 하였다. 인하여 농담하며 웃고 그쳤다. 李光義가 이 말로써 제 거실을 꾸미겠다고 칭하므로, 드디어 종이에 써서 주었다.²⁰⁾

이 글은 許筠 자신과 관련해서 그에게 받은 신통력 있는 점사, 백성들이 점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현실 세태 등을 기록했다. 許筠은 당시 名望있는 사대부 집안의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교유가 신분귀천을 가리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만남이다. 許筠은 儒者로 “나의 앞길은 내가 익히 알고 있소. 나는 하늘에 맡기고 명에 맡기는 사람이오.”라고 하며 자신은 점술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만, 백성들은 이광의 같은 선견지인을 만나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의 삶과 당시의 세태를 인정하고 있다.

또 「祥原郡王家記」는 王家와 관련된 서민들이 겪은 일을 기록하면서 지혜롭고 어진 임금에 대한 希求를 드러내고 있다.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상원군 북쪽 시오리 왕산촌이라는 곳에 왕총이 있었는데, 큰비가 내려 왕총이 무너졌다. 이를 조벽이라는 사람이 주관하여 복구하였더니,

20) 許筠, 『惺所覆瓿藁』 卷7, 「文部4」, 「探元窩記」 p.198. “探元窩者, 盲而談星命者李光義之室也. 奚謂之探元也? 取李白詠君平詩有探元化群生之句而名之也. (中略) 癸巳, 寓于中和府之北, 築室自號如是云. 余畸於世, 不喜卜. 故往來淇西凡五遭, 值義者數數, 亦不談命. 其從楊滄嶼而宿中和也, 義同榻寢. 偶問余命, 因曰 君算當延, 位當崇也. 然明年夏, 當佐海西幕矣. 吾當就訪於黃岡也. 及明年, 果佐幕到黃岡. 數日, 義果來曰, 吾言徵也耶? 余奇之曰, 噫! 世人之信卜喜卜, 皆坐于此也. 義又言某年吉, 某年凶, 某某年爲大藩爲帥臣爲近密卿貳, 歷歷甚悉. (中略) 旁有亢者趙君曰, 古有君相不言命之訓. 義言君當相, 則冥其不言命也. 余曰, 否否. 書曰, 我生不有命在天, 使此語出於堯舜夔臯, 則誠可謂喪邦之言也. 若出於阮籍陶潛之口, 則人必謂之達生也, 謂之樂天知命也. 余散誕於時, 不敢企夔臯之業, 而阮籍之放. 陶潛之曠, 庶幾與我同調, 則雖曰不有命在天也, 亦可乎哉? 因謔笑而止. 光義乞以斯語文其室, 遂載之牘而歸之.”

왕충의 신이 꿈에 나타나 은혜를 꼭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후 3년간 크게 풍년이 들고 노약자들이 병을 앓거나 요절하는 이가 없는 등 신령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조벽에게 들은 이야기로 許筠은 느껴지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옛날에 제후들은 隧道(氣血이 통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頸脈’을 이르는 말)를 하지 않았고, 묘라 하여 陵이라 하지 않았으며, 성인은 厚葬하는 것을 그르다 했는데, 지금의 이 왕충은 隧道를 앓고 묘라 칭했으니 예의에 맞고, 금은 보배를 저장함으로써 도적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니 지혜롭다 할 것이며, 또한 백성들에게 능히 복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였으니 仁이라 하겠다. 지혜롭고 어질고 예의를 알진대 그가 살아서는 좋은 임금이었고 죽어서는 밝은 귀신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애석하게도 史官들이 빠뜨려 그 이름이 드러나지 못했구나. 이를 인하여 글을 써서 역사의 빠진 것을 보충하는 바이다.²¹⁾

許筠은 왕충의 주인이 죽어서도 지혜롭고 어질고 예의를 아는데 살아서는 더욱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사관들이 빠뜨려 그 이름이 드러나지 못한 것임을 애석해하고 있다. 이는 어진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 해마다 풍년이 들고 태평성대하기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探元窩記」나 「祥原郡王冢記」는 백성들의 삶의 단면을 소개하는 것이다. 「探元窩記」는 맹인의 집에 대한 기록이고, 「祥原郡王冢記」는 왕충을 다시 쌓은 연유를 기록한 글이다. 이 작품들의 소재는 모두 민중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許筠은 이것을 통해 백성들의 애환과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1) 許筠, 『惺所覆瓿藁』 卷6, 「文部3」, 「祥原郡王冢記」, p.191. “古者諸侯不隧, 墓而不陵, 聖人以厚葬爲非. 今王冢則不隧而稱墓, 禮也, 不藏金寶以啓盜, 智也, 又能致福於民, 以謝其惠, 仁也. 智仁而知禮, 則其生爲令主, 死爲明神, 可知矣. 惜乎! 史氏之闕漏, 不著其名也. 因爲疏之, 以補石室之遺云.”

2) 시대를 반영하는데 알맞은 文章

앞 절에서 許筠의 文章觀에서 ‘載其道而傳’에서 ‘其道’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道라고 밝혔다. 當世之常語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문장이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의미로 文學이 지니는 결정론적 견해²²⁾를 말한다. 그 예로 당시의 문제를 비판적 어조로 접근하는 『惺所覆瓿藁』 卷6, 「文部8」의 論文²³⁾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현실적 문제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논술한 것들이다. 이 작품들은 앞서도 소략했으므로 여기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합리를 흥미요소가 가미된 틀로서 제시하는 「酒吃翁夢記」나 「巡軍府君廳記」를 살펴본다.

「酒吃翁夢記」나 「巡軍府君廳記」는 夢記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敘事의 記와는 색다른 서술 방식이다. 記의 敘事가 간혹 현실세계의 단편적인 實事를 재현하는 記體의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는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허구를 도입해서가 아니라, 초현실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데서 기인한다. 고려시대 이규보는 서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초현실의 경험에 의탁한 경우는 있다. 丈六金像의 영험을 기록한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성리학의 경험적 세계관이 정착된 조선 초기 記에는 초현실적인 사실에 대한 서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²⁴⁾

22) 유약우는 문학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의 무의식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반영 혹은 계시임을 나타내는 것이 文學의 결정론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는 통치자가 폭군이고 백성들이 그들의 원한을 나타내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대중 가요들은 불행의 조짐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들을 ‘詩妖 [시적징조]’라고 한다. 이러한 시요가 中國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中國의 역사책들은 ‘詩妖’로 가득차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나쁜 것을 예언하고 시대의 변태를 반영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들을 유약우는 시의 결정론적 개념의 특정한 실례라 보고 있다. (유약우, 앞의 책, p.162.)

23) 「學論」, 「政論」, 「官論」, 「兵論」, 「遺才論」, 「厚祿論」, 「小人論」, 「豪民論」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24) 김은미,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22.

그렇지만 許筠은 「酒吃翁夢記」나 「巡軍府君廳記」와 같은 작품에서 초현실적 경험의 사실을 드러내어, 자신과 관계된 불만을 표출하거나, 또는 현실의 불합리한 점을 폭로하고 있다.

「酒吃翁夢記」는 許筠이 과거장에서 만난 酒吃翁[柳淵叔의 호]이란 사람이 토산 민박에서 머물 때 꾸는 꿈을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다. 꿈에 주홀옹은 불교 세계를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끌려가, 원유관을 쓰고 자주 빛 옷과 옥 띠를 두른 자에게 재판을 받았다. 이때 주홀옹은 옆에서 자신에게 대답을 쓰도록 강요하던 관리가 은밀히 가르쳐준 대로 ‘나의 행적은 허모가 압니다’라고 하고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에 허자가 “주홀옹은 사람이 비록 禪教에 통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심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고, 그래서 주홀옹은 풀려날 수 있었다. 다음은 허균이 「酒吃翁夢記」를 기록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홀옹이 아침에 맨 먼저 나를 방문하여 상세히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中略) “이 꿈은 역시 우연이니, 어찌 의거해서 믿을 만한 것이겠소. 하지만 속인 중에 도를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자기는 아는 척하는 자들의 경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인하여 붓을 들어 기록하였다.²⁵⁾

許筠은 현실에서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었기에 도교나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불교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許筠은 삼척부사로 부임했을 때, 佛에 아첨했다고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기도 했다. 許筠은 이러한 유교 교조주의적 현실²⁶⁾에서 자신이 당한 굴욕에 대해 말하고 싶

25) 許筠, 『惺所覆瓿藁』 卷6, 「文部3」, 「酒吃翁夢記」 p.192. “吃翁回朝首訪余道其詳 (中略) 斯夢也亦偶然, 何足據信? 然亦可爲俗子不知道而強自爲知者之戒也. 因筆而識之.”

26) 이이화는 유교의 국시인 조선조의 전기 사회의 모순을 다음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권위주의 또는 교조주의이다. 둘째, 차별적인 인간관계로 신분 계층이 엄격하게 구분 지어지게 됐던 것이다. 셋째, 보편성이 부족한 윤리로 가족주의와 파벌 의식이 부추겨졌다는 것이다. (이이화, 『許筠의 생각』,

었을 것이다. 현실의 불합리한 점과 在上者들의 무지함은 민중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현실을 문제화하고 이를 항변하는 방법은 자신이 지은 「政論」이나 「學論」 등의 논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중들이 이해하고 문제화하기에는 夢記라는 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許筠은 이 꿈이 역시 우연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인 중에 도를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자기는 아는 척하는 자들에게 경계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한다고 말한다.

「巡軍府君廳記」에서는 夢遊記를 통해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았다. 이 작품은 男根 崇拜俗信과 伸冤 說話를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서사한 작품이다. 許筠은 광해군 2년 殿試 對讀官이 되었다가 조카를 급제시켰다는 이유로 禁府에 下獄됐다. 거기서 邊將들이 男根을 木刻하여 여자인 巡軍府君에게 바치며 복을 비는 모습을 보고 이는 慢神瀆禮 行爲라고 나무랐다. 許筠은 그 날 밤 꿈에 神宇에 가서 16, 7세 가량 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때 그녀의 자세한 幽冤을 듣게 된다. 여인은 惡小輩의 淫行을 피하려다가 살해당했는데, 나비로 변신해 判府事에게 범인을 알려주었고 마침내 범인을 잡아 원한을 풀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한 일이 원인이 되어 나쁜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 巡軍府君은 許筠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악습을 고쳐주기를 원했다. 다음은 「巡軍府君廳記」의 일부이다.

“이로써 저의 원수도 갚았고 서생의 억울함도 풀어졌으므로 순군부의 사람들이 신령스럽게 여기고, 인하여 제사를 차리며 향불을 올린 지가 지금까지 2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으나, 음란의 욕은 날로 계속 이르오니 저는 이를 깊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낫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옥에 걸린 자들이 재판을 받지 못하고 혹은 오래도록 지체되어 죽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제가 이를 분히 여겨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

뿌리깊은 나무, 1980, p.11.)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을 전승하여 능히 고치지를 못하니, 역시 슬퍼할 만합니다. 지금 大夫의 명철을 빌려 세상에 알리고자 하오니, 대부께서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소서.” 하였다. 그리고 또, “공은 액운이 무거우니, 만약 견책의 은전을 받거든 곧 남쪽 지방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길할 것입니다.” 하였다. 나는 “어찌 감히 밝은 신령이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일어나 읍하다가 번쩍 깨고 말았다. 아아, 그 얼마나 신령스러운 일인가. 즉시로 같이 갇힌 자들에게 알려 주었더니, 모두들 “그렇겠습니다.” 하고는, 남자의 성기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는데, 과연 여러 장수들은 잇달아 풀려나고 나 역시 남쪽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그 역시 징험된 것이다.²⁷⁾

許筠은 실제 禁府에서 그곳의 악습을 보았다. 邊將들이 巡軍府君에게 祈福하기 위해 남근을 목각하여 바치는 행위를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巡軍府君廳記」를 지었다고 여겨진다. 許筠은 악습을 고치려는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이같은 몽유기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酒吃翁夢記」·「巡軍府君廳記」는 당시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좋은 문학적 틀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직설적인 표현으로도 가능하지만, 흥미요소가 가미된 몽기로 서술하는 것은 민중 또는 독자나 청자에게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 요소는 시대를 반영하는데 큰 효과를 지니는 문장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흥미 요소가 가미된 문학적 장치의 하나가 소설이라 여겨지며, 「홍길동전」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7) 許筠, 『惺所覆瓿藁』 卷6, 「文部3」, 「巡軍府君廳記」 p.193. “妾之復仇, 而書生之冤釋焉, 府人以爲神, 因俎豆而香火之, 于今二百年餘. 雖芬苾不絕, 而桑中之辱日踵至焉, 妾深恥之, 無以爲容. 是以獄係者不得理, 或久滯至死, 皆妾憤之使然. 世之人愚以傳愚, 不能改, 亦可悼矣. 今假大夫之明, 欲以曉世, 大夫其善辭. 又曰, 公厄重, 若恩譴, 則南方最吉也. 余告辭曰, 敢不以明神所詔, 詔之人乎? 遂起揖, 醒然悟. 噫! 其靈歟! 亟以告同繫者, 咸曰然, 悉焚之, 諸將果相繼疏釋, 而吾亦南徙, 其亦徵也夫.”

3) 상대방의 의론을 중시하는 文章

許筠에 있어서 常語라 함은 대화체의 文章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議論을 중시하는 문장이다. 이는 在上者의 논리적 사유나 작자의 논변적 사유로 文章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在下者나 민중 또는 상대방의 의론으로 文章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방의 의론을 중시한 작품으로 「醉鶴亭記」를 들 수 있다. 崔岌(1539~1612)의 文章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최립의 「閱勝亭記」의 일부이다.

① 어느 날 장인께서 나에게 紙筆을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내 정자의 勝景을 이미 실컷 감상하였으니, 내 정자에 이름을 붙여 주고 記文을 써 볼 생각이 어찌 유독 없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閱勝亭이 어땠겠느냐고 하였더니, 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 왔다. 이에 내가 대답하기를, “閱이라는 글자 속에는 눈으로 본대[觀]는 뜻과 검열한다[考]는 뜻과 차례로 두루 거친대[歷]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閱書’라든가 ‘閱兵’이라든가 ‘閱世’라든가 하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② 이 정자야말로 산 모습과 물 빛깔에서부터 하늘 색과 구름 그림자에 이르기까지 勝景이 아닌 것이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곤 하니, 이것이 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산 색깔이 짙고 옅은 것과 물이 깊고 맑은 것과 하늘이 흐리고 개는 것과 구름이 덮였다 걷혔다 하는 것을 보면 승경이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를 검열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것이 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濃淡과 淳澈, 魚鳥와 華實, 朝夕과 四時에 따른 색다른 풍경은 물론이요, 아름다운 빈객과 멋진 벗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나 말과 소가 남북으로 왕래하는 것들 역시 정자의 승경 아닌 것이 없는데, 이들 모두는 千變萬化를 두루 거치는 것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③ 아, 어찌 유독 이런 승경들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건강한 때와 노쇠한 때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기쁨과 근심이 서로 교차하는 것 역시 그렇다고 할 것인데, 비록 창문가에 높이 기대어 감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塵世를 초월한 그런 인물이 결국 못된다고 한다면, 그도 또한 더불어 閱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필경에 정자

가 사람을 閱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정자를 閱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자와 사람 모두 天地가 閱하는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²⁸⁾

먼저 ①에서는 정자의 이름을 閱勝亭이라 명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론을 부여하고 있다. ‘觀’, ‘考’, ‘歷’으로 나누어 ‘閱’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②에서는 정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이 모두 승경이므로 열승정이라고 함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논리를 덧붙이고 있다. 이어서 ③에서는 『莊子』 「齊物論」의 어법을 차용하여 ‘遺世之人’만이 ‘閱’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외물[객관세계]로부터 인간[주관세계]의 문제로 끌어들이어 관념적인 사변론으로 전환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최립은 열승정이라 명명한 이유 → 정자와 관련된 경치에 대한 의론 → 외물과 인간의 조화를 희구하는 자신의 입장을 사변적 논리로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에 許筠은 「醉鶴亭記」에서 자신의 논리보다는 李長卿의 議論에 집중하여 文章을 전개한다. 許筠은 이장경의 말한 醉鶴亭이라 명명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장경은 옛사람들이 白樂天을 흠모하여 ‘백에 취한다. 醉白’고 하였고, 墨竹을 사랑하여 ‘묵에 취한다. 醉墨’고 하였으나, 저는 조금만 술을 마셔도 곧 취한 상태가 술을 많이 마신 사람과 匹敵하며, 또한 춤추는 학에 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즉 亭子를 학으로써 이름 하게 되었다³⁰⁾고 밝혔다. 이에 許筠은 무릇 物이란 독특하

28) 崔崧, 『簡易文集』 卷2, 「記」, 「閱勝亭記」 p.257. “一日, 丈人授簡於余而語之曰, ‘子既賞吾亭之勝矣, 獨無意於名吾亭而記之乎?’ 余起而請名曰閱勝. 曰, ‘閱之爲言 何義也?’ 曰, ‘閱者, 觀也考也歷也. 故有閱書閱兵閱世之文. 亭於山容水色 天光雲影, 無非勝也, 而吾日觀之, 非閱乎? 其於濃淡淳澈, 晴舒卷, 無非勝也, 而吾若考之, 非閱乎? 至於風煙雪月, 魚鳥華實, 朝暮四時之殊象, 與夫佳賓勝友聚散, 去馬來牛南北, 無非亭勝而閱歷萬變者也. 噫! 何獨勝哉? 人之健衰相代, 憂樂相因, 雖高倚軒窓之上, 而終非遺世之徒, 則安得不與之閱乎? 畢竟亭閱人耶? 人閱亭耶? 抑亭與人俱爲天地之所閱耶?’”

29) 김우정, 『簡易 崔崧 散文 研究』, 단국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79.

30) 許筠, 『惺所覆瓿』 卷6, 「文部4」, 「醉鶴亭記」 p.199. “堂姪李君長卿寓居楊山

여 마음에 취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밑에는 바로禍가 뒤따르는 법인데, 지금 그대가 술과 학에 있어 너무도 좋아하다가 도리어 그 허물을 불러 들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장경은 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소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며 오직 술과 학 이것만을 탐하였으니 꽤 망한 것이 마땅합니다. 阮籍과 劉伶은 아무리 술을 좋아했어도 疏放과 달관이 되기에 족하였으며, 林逋가 아무리 학을 사랑해도 그 고고하고 曠蕩함을 보이기에 족하였으니, 어찌 족히 一身의 害가 되었겠습니까? 다만 그 빼어난 점을 더해 줄 뿐이었지요. 나는 백성과 社稷에 寄託하고 관직의 사무에 매인 바가 없으니, 내가 술을 사랑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까?³¹⁾

이것도 이장경의 醉鶴亭에 대한 의론이다. 許筠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夏나라·商나라가 망했으며, 학을 즐기고 한가함을 짝하다 衛나라가 어지러운 지경에 빠졌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장경은 자신은 社稷에 기탁하고 관직에 매인 바가 없으므로 술을 사랑하고 학을 좋아해도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許筠은 자신의 불민함을 사과하고 물러났다고 한다.³²⁾

「醉鶴亭記」의 기록자는 許筠이다. 그러나 이글의 논지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자의 주인인 이장경이다. 취학정이라고 명명한 이유, 취학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론 등이 작자인 許筠의 논리가 아닌 記의 의뢰자인 이장경의 의론으로서 文章을 구성한 것이다.

之北。前臨海水，後以長松百餘株爲藩垣。樂其曠而幽，選地之爽塏，構屋以燕處，名之曰醉鶴亭。”

- 31) 許筠, 『惺所覆瓿藁』 卷6, 「文部4」, 「醉鶴亭記」 p.199. “此皆有國而司治牧者也, 不保邦岫民, 而惟酒鶴是耽, 宜其敗也. 阮籍劉伶雖喜酒, 適足以爲放達, 而林逋雖愛鶴, 亦足見其高曠, 奚足爲身害也? 祇益其逸焉耳. 吾無民社之寄, 職事之糜, 吾不愛酒好鶴, 而誰愛好之耶?”
- 32) 許筠, 『惺所覆瓿藁』 卷6, 「文部4」, 「醉鶴亭記」 p.199. “余謝不敏而退 遂以此記君之亭云”

결국 浮薄하고 周密한 인용과 변용, 기발하고 논쟁적인 의론, 정교하게 조직된 篇章의 운용으로 산문의 형식미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³³⁾는 평을 받는 崔杼는 사물에 의론을 부여하고 나아가서 관념적인 사변론으로 전환하는 文章작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許筠의 文章에서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논변이나 입장보다는 상대자의 의론을 위주로 이끌어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 절에서 ‘通上下之情’의 의미로, 在上者에서 在下者에게로, 在下者에서 在上者로 향하는 文學으로 규정하였듯이 常語는 작문자의 사변적 논리보다는 상대방 또는 在下者의 의론으로 구성하는 文章이다.

3. 篇·章·字法을 중시한 文學

許筠은 當世之常語를 통한 개성적인 文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객은 그 文章을 읽는 사람은 文從字順하여 마치 입을 벌리고 목구멍을 보는 것과 같아서 해득하는 자나 해득하지 못하는 자를 막론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이 쉬웠으므로, 고문이라 볼 수 없다고 이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許筠은 문장의 효용은 ‘辭達’에 있다고 하면서 古者들의 예를 들어서 문장론을 펼쳐 나갔다. 그렇다면 고문에서 강조하는 法古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이에 대해 許筠은 法古는 辭達이 지니는 효용성이나 當世之常語가 가지는 일상성보다는 文章의 수사적 층위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법고에 대한 許筠의 입장이다.

① 篇에는 한 뜻으로 곧바로 내려간 것도 있고, 혹은 서로 걸어서 연결하여 여닫는 것도 있고, 혹은 마디마디 정감을 내보이는 것도 있고, 혹은 늘어놓다가 냉정한 말로 끝을 맺는 것도 있고, 혹은 자세하고 변잡하면서도 법칙이 있는 것도 있다.

② 章에는 조리가 정연하여 형클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뒤섞이되 잡되지 않

33) 김우정, 앞의 논문, p.145.

은 것도 있고, 끊어진 듯하되 앞을 잇고 뒤를 동여맨 것도 있고, 극히 지리한 것도 있고, 극히 짧은 것도 있고, 말을 끝내지 않는 것도 있다.

③ 字에는 올리는 곳, 돌리는 곳, 잠복하는 곳, 수습하는 곳, 거둬하되 어지럽지 않는 곳, 강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 곳, 끌어당기되 힘을 부리지 않는 곳, 열고 닫는 곳, 부르고 소리치는 곳이 있다.

④ 字가 밝지 못하면 句가 고상하지 못하고, 章이 안정되지 못하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篇을 이룰 수 있다. 내 글은 단지 이것을 깨달은 것일 뿐이며, 古文 또한 이것을 행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이른바 글을 이해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것을 엿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³⁴⁾

許筠은 篇法, 章法, 字法의 수사적 층위에서 法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별 문체의 특징을 고려한 분별적인 논의가 아니라 산문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후대에 姚鼐가 『古文辭類纂』에서 산문 文體를 크게 열세 가지³⁵⁾로 분류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허균이 제시한 범고의 수사적 층위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文以載道라는 文學認識이 팽배해 있던 朝鮮 前期의 文學家들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文章에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수사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수사적 층위의 개념을 간략히 요약 정리한다.³⁶⁾

34) 許筠, 『惺所覆瓿藁』 卷12, 「文部9」, 「文說」, p.238. “篇有一意直下者, 或鉤連筭論者, 或節節生情者, 或鋪敘而用冷語結者, 或委曲繁瑣而有法者. 章有井井不紊者, 有錯落而不雜者, 有若斷而承前繼後者, 有極宄有極短者, 有說不了者. 字有響處, 幹處, 伏處, 收拾處, 疊而不亂處, 強而不努處, 引而不費力處, 開闔處, 呼喚處. 字不亮則句不雅, 章不妥則意不瀟, 二者備而乃可以成篇. 余之文, 只悟此也, 古之文, 亦行此也. 今之所謂解者, 亦未必觀此, 況不解者否?”

35) 姚鼐는 『古文辭類纂』에서 산문 문체를 論辨類·序跋類·奏議類·詔令類·書說類·贈序類·傳狀類·碑誌類·雜記類·箴銘類·頌讚類·哀祭類·辭賦類 등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36) 강명관, 「許筠 <文說>의 새로운 해석」,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pp.358-360.

①은 篇法에 관한 것으로 한 편의 작품 전체를 통어하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언어의 사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어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②는 章法에 관한 것으로 단락의 구성과 안배 방식을 말한다. ③의 字法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센텐스나 단락 속에 어휘를 안배하는 방식이다. 자법 역시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으나, 許筠이 말하는 자법은 작품을 구성하는 어휘의 그물망 속에서 작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어휘의 위치와 기능에 관계된 것이다. 편법, 장법, 자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작법에 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④는 바로 편·장·구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음에 대한 언급이다.

여기서 許筠의 문장 수사론은 어디에서 연원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문학론의 출발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許筠이 말하는 法古는 명나라 唐宋派의 문학이론³⁷⁾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唐宋派는 전·후칠자가 주도하던 擬古文學 운동에 반대하였는데, 唐順之는 그의 선집인 「文編」 「自序」에서 ‘文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文에는 法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冊이라는 것은 文을 교묘하게 만든 것이며 法이 지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이 당송과 문인들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실제 秦漢派도 法을 강구한다. 그러나 진한문은 원래 規矩繩墨이 없으므로 그 法은 엿볼 수 없으나 당송문은 본래 規矩繩墨이 있어서 法을 배우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당송문은 당시의 언어에 근접하였으나 진한문은 당시의 언어와 相隔하였다. 그러므로 당송을 모방하는 자는 抑揚頓挫에 있어서

37) 당송파의 法은 神明을 구하였는데 神明도 또한 가히 볼 수 없으므로 이에 開闢 順逆과 經緯 錯綜에서 구했다. 이에 有定에서 無定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 결과 新意를 規矩繩墨에서 얻게 된다고 파악하였다. (차상원, 『中國古典文學評論史』, 범학사, 1975. p.387.) 그 대표적 인물로는 王守仁·楊慎을 비롯한 王慎中·唐順之·茅坤·歸有光 등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으나 진한을 배우는 자는 不得不 고인의 어휘와 어법을 함께 익혀 나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인의 어휘와 어법을 쓰니 가령 유사하긴 해도 신명은 없고 변화도 불가능 했다.³⁸⁾ 이러한 당송파의 文章이 진한파와 달리 당시의 언어에 근접했다는 점은 許筠이 當世之常語를 통한 개성적인 文章을 지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開闔, 抑揚, 鋪敘, 用冷語結 등은 대개 宋代 元代的 책에 이미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明代에도 적지 않게 사용되었다. 冷語結을 제외하면 다른 용어들은 명대의 작가, 비평서들이 허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당송파의 작가들이 그렇다. 따라서 許筠은 그가 알고 있었던 왕신중·당순지·모곤·귀유광 등에게서 그 용어와 논리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³⁹⁾

38) 차상원, 위의 책, pp.387-388.

39) 강명관은 이상과 같이 설명하면서 許筠의 산문비평에 관한 용어들은 당송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빌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許筠의 『惺所覆瓿藁』에 보이는 비평적 사유에서 당송파 작가들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당대에는 당송파 비평의 강력한 선전도구였던 모곤의 『唐宋八大家文鈔』가 유입된 흔적이 없다는 예를 들고 있다. 그는 許筠의 산문비평에 사용한 문장 수사학적 용어들의 출전을 명종연간에 우리나라에서 인쇄되었던 『文章一貫』 등에서 찾았다. 그리고 許筠의 개성을 존중하는 독자적 문학론의 당송파적 산문 수사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논증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許筠이 문장수사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왕세정의 비평집 『藝苑卮言』에 편법 장법에 관한 언급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許筠이 당송파에 경도 된 것이 아니라 의고주의 문학론에 경도되었으며, 당송파적 논리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명관, 「許筠 <文說>의 새로운 해석」,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pp.368-373.) 반면에 김우정은 許筠의 왕세정·이반룡 등에 경도는 문화대국 대문장가인 전후칠자에 대한 관심이며, 복고적 문학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으로, 의고파의 문학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작품에 있어서 시적 성취에서는 ‘詩必盛唐’이라는 문학론을 지향하고 있으나, 산문 작품에 드러나는 면면을 보아서는 의고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굳이 인정한다면 전후칠자의 문학적 성취에도 의고로만 제한 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許筠이 당순지와 전후칠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鶴山樵談」에 보인다.

명나라 사람 중 글로 이름을 날린 十大家는 崆峒 李獻吉·陽明 王伯安·荊川 唐應德·祭酒 王允寧·按察 王慎中·潯陽 董玠·鹿門 茅坤·滄溟 李攀龍·鳳洲 王世貞·南溟 汪道昆인데, 李崆峒은 오로지 西漢만 본받고, 王世貞·이반룡은 난삽한 글귀가 先秦을 앞지르고자 하고, 汪南溟은 화려하고 건실하며 동분·모곤은 평이하고 원숙하며, 王世貞은 풍부하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 명나라 사람은 모두 진부하고 속된 것을 역겹게 여겼다.⁴⁰⁾

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당순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伯安은 文을 전공하지 않고 학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박잡함을 면치 못하

許筠을 개성을 존중하는 반의고주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본 논지에서는 許筠의 문학론이 개성을 존중하는 당송과적 문학과 맥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16세기말 17세기 초는 문학적으로는 목릉성세이지만 그 이면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혼돈의 시기였다.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이라는 외환을 겪은 시기이고, 내적으로는 선비들이 동서당으로 분립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한 사상적인 면에서는 주자학 일색의 흐름에서 양명학이 유입되는 시기이고, 시문학에서 산문 문학으로 중심축이 전환되는 시기였다. 이는 곧 문학의 중심에 사대부가 위치하였으나 차츰 중심축이 민중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의 중심에 처했던 인물이 許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작품 속에 擬古派에 경도된 비평이 많았다고 의고론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가 변혁을 요구하는 시기라는 면에서 접근한다면 허균에게는 다양한 사상과 문학이 혼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惺所覆瓿藁』에 언급된 내용으로 許筠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의 동시대 인물들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전후의 문인들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허균 문학 형성의 내적 동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許筠의 문학적 위치를 확고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40) 許筠, 『惺所覆瓿藁』, 卷26, 附錄, 「鶴山樵談」 “明人以文鳴者十大家, 李崆峒獻吉, 至王陽明伯安, 唐荊川應德, 王祭酒允寧, 王按察慎中, 董潯陽玠, 茅鹿門坤, 李滄溟攀龍, 王鳳洲世貞, 汪南溟道昆. 而崆峒專學西漢, 王李則鉤章刺句, 欲軼先秦, 南溟華健, 董茅則平熟, 王慎中則富瞻. 明人皆厭之腐俗.”

고, 荊川은 典雅純實하여 모두 대가가 될 만하다. 王元美의 무리가 明人の 文章을 西漢에 비기고, 李獻吉을 太史公(司馬遷)에게 비기고, 于鱗은 揚子雲에게 비기고, 자기는 司馬相如에게 비겼으니, 그 자기 자랑이 너무도 심하다.⁴¹⁾

당순지에 대해서는 典雅純實하여 대가의 소질이 보인다고 평하고 있다. 명나라 십대가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 당송파로 일컬어지는 당순지만을 칭찬 일색으로 나가고 있음은 許筠이 의고적 文學에 반대하고⁴²⁾ 전후칠자를 비판적으로 몰아가는 당송파 문인들의 文章論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송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法古를 수사적 층위에서 편법, 장법, 자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게 된 이유이며, 나아가서 當世之常語를 통한 변화무쌍한 문장을 구사하고자 했던 것이다.

III. 結論

지금까지 許筠 문학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는 「文說」에 대해 살펴보았다. 許筠은 공자의 문학론을 제시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문학의 목표가 ‘辭達’에 있음을 밝히고 文章이란 ‘通上下之情’과 ‘載其道而傳’을 실

41) 許筠, 『惺所覆韻藁』 卷26, 附錄, 「鶴山樵談」 “余所見畧同伯安不專攻文, 而以學發之, 故未免駁雜, 荊川則典實然, 皆可大家. 王元美輩, 以明人文章比西漢, 以獻吉比太史公, 于鱗則比子雲, 自托於相如, 其自誇太甚.”

42) 이병순은 許筠에게 있어서 의고주의에 기울었던 면도 있었으나 그것은 주로 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許筠의 의고주의는 스승 이달의 영향으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본다. 許筠은 명과 朝鮮문단에서 전후칠자를 으뜸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몽양·하경명·이반룡·왕세정을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았다. 그래서 이들의 시를 모아 『명사가시선』을 엮었고, 또 이들의 문집을 수집하여 주해를 붙이거나 재편집하였으며, 이반룡의 『당시선』을 본떠서 『국조시산』을 펴냈고, 왕세정의 『감주사부고』의 체제를 그대로 본떠서 『성소부부고』를 엮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보면 許筠의 의고주의는 거의 대부분 시와 관련된 것들이고 문에서는 시와는 달리 비판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병순, 「許筠의 반의고주의 文學論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49.)

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通上下之情’과 ‘載其道而傳’은 기존의 유가적 문학이론에 바탕한 고문론의 논리와는 다른 것으로, 許筠은 민중의 정감을 바탕으로 하고,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文章觀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의 文章이 지향하는 민중성과 현실성을 드러낸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원론적인 고문론에 대한 접근은 當世之常語를 통한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실제 작품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當世之常語는 허균의 문학론을 이해하는 중요지점이기에 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상어의 실재를 작품 속에서 확인하였다. 첫째, 민중들의 삶과 소박한 감정이 담긴 문장이다. 둘째, 시대를 반영하는데 알맞은 문장이다. 셋째, 상대방의 의론을 중시하는 문장이다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것이 드러나는 許筠의 실제 문장을 통하여 논증하였다. 許筠은 이러한 當世之常語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문장을 쓰고자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許筠이 주장하는 法古에 대해 살펴보았다. 許筠이 사용한 편법, 장법, 자법에 관한 수사적 표현은 개별 문체의 특징을 고려한 분별적인 논의가 아니라 산문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사적 층위에 대한 고려는 文以載道라는 文學認識이 팽배해 있던 朝鮮前期의 文學家들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文章에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반면에 그 法古에 연원이 당송과 문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許筠의 「文說」에 드러나는 개성적 문학론이 당송과 문학과 연관 있다고 하지만, 許筠의 비평적 문장에서 의고문파에 경도되었던 사실과는 크게 충돌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許筠 시대와 관련된 주변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또한 許筠이 실제 문장에서 수사학적 비평은 어떻게 적용되었고, 후대의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 李 植, 『澤堂先生別集』, 『韓國文集叢刊』 88, 민족문화추진회.
- 崔 昱, 『簡易文集』, 『韓國文集叢刊』 49, 민족문화추진회,
- 許 筠, 『惺所覆瓿藁』, 『韓國文集叢刊』 74, 민족문화추진회.
- 蘇 軾, 『蘇軾文集』
-
-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수용과 진한고문파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 , 「허균과 명대문학」, 『민족문학사연구』 13, 민족문학사학회, 1998.
- , 「16세기 말 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제41집, 대동문화연구회, 2002.
- , 「許筠 <文說>의 새로운 해석」,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 김경일·이수웅, 『중국문학사』, 대한교과서, 1999.
- 김우정, 「簡易 崔昱 散文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은미,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박세진, 「許筠의 記 작품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승훈,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기 문학기론의 다변화 양상」,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심경호, 『朝鮮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 유약우저·이장우역, 『中國의 文學理論』, 명문당, 1994.
- 이문규, 『許筠散文文學研究』, 三知院, 1986.
- , 『허균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 이병순, 「許筠의 반의고주의 文學論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이화, 『許筠의 생각』, 뿌리깊은 나무, 1980.
-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 장덕순, 「허균문학의 문학적 위치」, 『허균연구』, 새문사, 1989.

- 정교주, 「허균문학 연구-문학관과 산문작품의 갈래별 특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90.
- 조동일,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98.
- 차상원, 『中國古典文學評論史』, 범학사, 1975.
- 차용주, 『허균연구』, 경인문화사, 1997.
- 최신호, 「비평을 통해서 본 허균문학의 기본 좌표」, 『허균연구』, 새문사,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Literature of Heo, Kyoon - Centering around
『Theory of Literature[文說]』 / Lee Kyu Un**

Heo, Kyoon(1569, Sunjo 3~1618, Kwanghegoon 10) is a writer who showed life and literary eccentric conduct which transcend period.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study a passage of his theory of literature by examining the individualistic syntax of Heo, Kyoon which is revealed in 「theory of literature[文說]」.

Heo, Kyoon could meet with new theories of literature in then reform of period and thought, and he came to present his own literature theory by accepting these positively. What are representative are 「theory of literature[文說]」 and 「poem advocacy[詩辨]」 etc.

Heo, Kyoon clarified that the goal of literature that he, himself aims at in speech achievement by presenting the theory of literature of Confucius, and clarified that sentence is for practicing ‘Tongsanghajijung(通上下之情)’ and ‘Jegidoijun(載其道而傳)’.

Here, ‘Tongsanghajijung(通上下之情)’ and ‘Jegidoijun(載其道而傳)’ are different from the logic of classical theory which is based on existing Confucian literature theory.

Heo, Kyoon thought that sentiment of people should be base and then social question should be made as contents. That is, he emphasized people nature and actuality nature that sentence aims at.

Heo, Kyoon aimed at his own individualistic sentence through Dangsejisangeo(當世之常語) on the basis of principle recognition for this classics.

* High School, Teacher / ddd3315@empal.com

Dangsejisangeo(當世之常語) is important point to understand the theory of literature of Heo, Kyoon. So, everyday language was confirmed in work by classifying into 3 items. First, it is sentence in which life of people and simple feeling are included. Second, it is sentence to be proper for reflecting period. Third, he arranged from the viewpoint to be sentence to take serious view of the argument of the other person and proved by presenting the real sentence of Heo, Kyoon that this is revealed as example. After all, Heo, Kyoon tried to write his own sentence on the basis of Dangsejisangeo(當世之常).

Lastly, this researcher examined about law that Heo, Kyoon insists. Rethorical expression for easier method, long method, and character method that Heo, Kyoon used is not divisional argument to consider the feature of individual style but it is including comprehensive and universal argument for prose whole. However, consideration for this rhetorical layer is contrary to the viewpoint of literary men at the first half part of Chosun that literature recognition to be Mooijedo(文以載道) overflowed. Then, the meaning is found in that it presented method to highlight subject in sentence. On the contrary, it was confirmed that origin of law has relation with the literature of school of Dang and Song.

【Key words】 Heo Kyoon(許筠), Logic of classical theory, Everyday language, 「Theory of literature[文說]」

투고일 : 5월 6일, 심사일 : 5월 20일, 게재확정일 : 6월 5일